

## 카자흐스탄과 한국 통과의례의 유사점

보란타예바 파리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Title:** Comparison of the Rites of Passage of the Kazakh and Korean Nations

**Author:** Borantayeva F.Zh.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In this article says important of increasing relationship of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Kazakhstan connect with mentality and rites of the passage. The author has given the life cycle ceremonies four places: birth, age, marriage and funerals. Despite far from territory, due to the similarity of two countries cultural and life cycle rituals notion understand each other, the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a bright future as a result.

**Keywords:** Korea, Kazakhstan, rites of passage, birth, age, marriage, similarity

**주제어:** 한국, 카자흐스탄, 통과의례, 출생, 성장, 결혼, 유사점

### 1. 머리말

세계화된 현대 사회에서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관계에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양국 협력의 기반이 되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분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민의 사고방식을 비교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통과의례의 공통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통과의례(rite of passage)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 지위가 바뀌거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되풀이될 때 인간이 치르는 일정한 집단적 의례를 말한다. 일생에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통과의례는 인류의 보편적인 의례라 할 수 있다. 통과의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지만 사회구조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강조하는 의례가 다르고 절차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통과의례는 «출생, 성장, 결혼, 장례»의 네 단계로 나누는데, 본문에서는 이에 맞추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통과의례를 비교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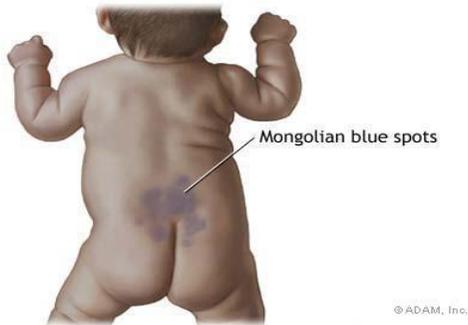
## 2. 출생

### 2.1. 몽골 반점과 관련한 설화

몽골 반점은 엉치뼈, 등아래 등의 피부에 나타나는 얼룩덜룩한 푸른반점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으며 네 살쯤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피부 결합 조직의 층에 발생하는 것으로, 몽골족에게 흔히 볼 수 있다. 몽골인종(동아시아, 아메리카 인디언, 말레이인 등) 신생아 중에서 90%가 몽골반점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동부 아프리카의 80%, 라틴아메리카의 46%, 코카사스(백인)의 1-9%의 주민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몽골 반점과 관련한 설화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삼신할머니가 임산부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삼신할머니가 아기 엉덩이를 때려서 쉽게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Періште(천사)가 삼신할머니 역할을 한다.

<그림 1> 몽골 반점



### 2.2. 작명

카자흐스탄과 한국 풍속의 유사점 중에 하나는 이름을 짓는 것이다. 과거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높아서 특정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천한 이름을 지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은 아이에 외모와 건강을 말하지 않고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천한 이름이 악마의 눈과 안 좋은 일에서 아이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는 아들을 선호하여 딸만 있는 경우 딸의 이름에 아들의 탄생을 기원하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양국의 이름에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많다.

<표 1> 친한 이름

카자흐스탄	한국
Ұлтарак 울타락 (신발갈창)	돼지
Елеусіз 엘레우시즈 (탁월하지 않은)	개똥이
Елемес 엘레메스 (존재감 없는)	삼돌이
Итқұл 잇꿀 (개의 노예)	마당쇠
Қарақұл 까라꿀 (검은 노예)	언년이

<표 2> 남아선호의 여아 이름

카자흐스탄	한국
Ұлболсын 울볼슨 (아들을 낳으리라)	끝순이
Ұлжалғас 울잘가스 (다음엔 아들 낳기를)	말자
Ұлбөбек 울보백 (남자아이)	후남
Ұлбике 울비케 (남자아가씨)	필남

<표 3>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비슷한 의미의 이름

카자흐스탄	한국	뜻
Ақжол (하얀 길)	길	인생의 앞길을 잘 닦으라
Еламан (건강한 나라) Елжас (젊은 나라) Елдос (우호적인 나라)	나라찬	참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으로 자라라
Сауле (빛) Нұрсұлу (예쁜 빛) Нұрбек (빛 남자)	나빛 빛나리	빛처럼 밝고 환한 아이가 태어나다
Айгүл (달같은 꽃) Гүлжайна (꽃이 피다) Мейіргүл (꽃같은 마음)	꽃내 꽃가람 꽃초롱 꽃큰	꽃처럼 예쁘게 자라라
Қуат (힘) Қуатбек (힘센 남자)	두힘	힘센 사람으로 자라라
Мөлдір (맑다)	물맑	물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라

### 2.3. Қырқынан шығару(40 일)과 삼칠일

한국의 삼칠일과 카자흐스탄의 Қырқынан шығару(40 일)은 산모가 건강을 되찾고 아기도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21 일(3x7), 카자흐스탄에는 40 일을 어

똥게 보내느냐에 여자의 평생 건강이 좌우된다고 믿는다. 이 기간에 산모가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비슷한 점은 다음과 같다.

- 땀을 내는 것은 건강에 좋다.
- 목욕을 피하고 가벼운 샤워를 해야 된다.
- 찬 음식은 되도록 삼간다.
- 산모 몸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3. 성장

#### 3.1. 돌과 1жас(돌)

아기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첫 생일에는 한국에서는 돌잔치를 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1 жас 를 한다.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돌상에 돈, 실, 연필 등을 놓고 아기가 선택하게 하는데, 이를 돌잡이라고 한다. 잡는 물건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점쳐 본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아이 앞에 책, 돈, 돛브라(전통악기)를 놓는다. 잡는 물건에 따라 학자, 부자, 가수가 될 거라고 믿는다.

<그림 2> 한국의 돌잡이



<그림 3> 카자흐스탄의 돌잡이



#### 3.2. 환갑, 고희, 팔순과 40жас, 50жас, 60жас, 70жас

환갑은 만 60세의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이다. 환갑은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의 평균수명은 60세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환갑은 장수를 축하해주는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축하잔치는 더 오래 살라는 바람이기도 한다. 물론 60세 이상의 진정한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서 이들을 위해 고희(70세), 팔순(80세) 잔치를 열었다. 특히 고희(古稀)는 옛부터 드문 나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수명이 매우 짧았음을 보여주는데, 현대 한국에서는 평균수명이 매우 증가하여 환갑이나 고희의 의의가 많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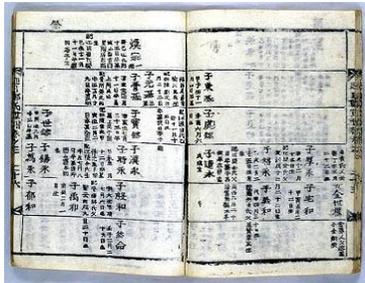
카자흐스탄에서 40жас, 50жас, 60жас, 70жас 는 전통적인 문화는 아니지만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큰 잔치를 열고 있다. 또한 63 세는 잔치는 열지 않지만 종교적으로 예언자의 나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나이이다.

#### 4.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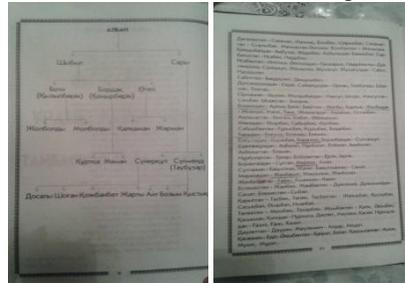
##### 4.1. 동성동본금혼과 Жеті ата(7 세대친족금혼)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이다. 카자흐스탄에는 이와 비슷한 «Шежіре»가 있다.

<그림 4> 한국의 족보



<그림 5> 카자흐스탄의 Шежіре



두 나라의 결혼식 풍습에는 차이가 많지만, 결혼과 관련한 «금기»가 있다. 한국의 «동성동본 금혼»은 친족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7ата(7 세대)는 친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 조상의 모든 자손 일곱 세대를 가까운 친척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조상을 알고 가족 내에서 결혼을 금지하기 위해 카자흐인들의 가계도인 Шежіре 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향목에 조상을 열거한다. 한국에서 동성동본 금혼은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중지되었고, 2005년에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물론 현재도 이러한 관습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에서 Жеті ата(7 세대친족금혼)는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 4.2. 결혼식

현대 한국의 결혼식은 전통 혼례와 서양식 혼례가 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나 천주교 신앙을 가진 집안인 경우에는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식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한다. 과거에는 전통 혼례복을 입었지만 요즘에는 서양처럼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는다.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결혼식은 전통 혼례와 서

양식 혼례가 섞여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신부측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는 전통 옷을 입고 신랑측에서 결혼식을 할 때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는다. 두 나라 결혼식 문화 중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한 번 하는 데 비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의 집에서도 결혼식을 한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신부의 부모가 딸을 떠나 보내고 신랑이 신부를 대리고 간다는 의미에서 먼저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 다음에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림 6> 한국의 전통 혼례



<그림 7> 카자흐스탄의 전통 혼례



## 5. 결론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인 종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장례 문화와 관련하여 죽은 후 3일이 지나서 매장하는 정도 외에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장례와 관련한 비교는 생략하였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통과의례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한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두 민족은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동양의 특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전통적 유사성은 양국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협력하여 조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기반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Сейіт Кенжеахметұлы. Қазақ халқының салт-дәстүрлері., - Алматы кітап. 2007
2. «Қазақтар». Көпшілікке арналған тоғыз томдық анықтамалық. Тарихи тұлғалар. - 2-ші басылым., — Алматы: «Білік» баспа үйі, 2003. - 1. Т. - 373.
3. <http://blog.naver.com/sadfo/120022379823>
4. <http://projectresearch.co.kr/2011/10/09>